

사(史): 시대와 정신

조지 오웰의 『1984』와 현대사회
-판옵티콘의 개념으로

사학과
2011*****
임나경

<목차>

1. 서론

2. 본론

- (1) 판옵티콘이란?
- (2) 『1984』와 판옵티콘
- (3) 현대사회와 판옵티콘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나는 수업을 통해 조지오웰의 『1984』라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영화를 떠올렸다. 첫 번째로는 나탈리 포트만과 휴고 위빙이 주연을 맡았던 “브이 포 벤데타”이고 두 번째로는 봉준호감독의 작품으로 크리스 에반스, 송강호, 틸다 스윈튼 등이 출연했던 “설국열차”이다. 주요한 배경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는 점에서 『1984』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을 하였고, 영화 평론을 찾아 본 결과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발표한 ‘하버드대학교 대학생 선호도서’에 조지 오웰의 『1984』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가디언(Guardian)’지의 조사에 따르면, ‘20세기를 가장 잘 정의한 책’ 1위로 오웰의 1984년이 차지했는가 하면, 2008년 ‘뉴스위크(News Week)’ 선정 ‘100대 명저’에 오웰의 1984년이 2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¹⁾ 그리고 수업에서도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이 다뤄졌다. 조지 오웰은 이 책을 1949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지 오웰이 소설 속에서 예상했던 1984년을 지나왔으며, 현재 2015년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위의 내용과 같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1984』의 추천사를 이렇게 썼다. “1984년이 오고 갔다. 하지만 1949년의 오웰이 예언한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 『1984』는 첫 문장에서 마지막 네 단어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설득력 있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해냈다.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이고 가슴에서 잊히지 않는 소설이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담긴 경고의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해지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1984』가 오늘 날에 던지는 경고와 함의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을 ‘판옵티콘’의 개념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서정호, 『오웰소설 ‘1984’의 알레고리에 대한 시각이미지 표현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논문, 2011, p.13.

2. 본론

(1) 판옵티콘이란?

판옵티콘이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원형 모양의 감옥 건축양식으로 J. 벤담은 소수의 감독자가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모든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하면서,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의 합성하여 1791년 처음 이 말을 창안했다. 중앙에 높은 하나의 감시탑과 그 주변 둘레에 여러 방을 둔 건물구조로, 벤담은 제안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이 감옥의 본질적인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판옵티콘'이라 명명했다. 또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에서 벤담의 판옵티콘 개념을 다시 부활시켜 고찰하면서 근대 권력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푸코는 판옵티콘을 통해 '권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권력행사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²⁾

판옵티콘이란 벤담의 건축학적 기획을 분석해서 '근대성'의 이념을 시각중심주의 인식론이라고 규정한 푸코는 근대적 진리의 기준인 봄(능동적 시선)과 보여짐(피동적 시선)의 인식론적 관계에서 보는 자(감시자)와 보여지는 자(피감시자)의 사회정치적 관계를 밝힌다 푸코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보는 자만이 근대적 진리를 소유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자는 인식의 대상만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런 인식론적 관계로 인해서 보여지는 자는 보는 자에게 사회정치적으로도 종속된다는 것이다. ³⁾

(2) 『1984』와 판옵티콘

『1984』 속의 오세아니아 사회의 모습에 나타나는 지배권력과 피지배층의 관계를 판옵티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빅브라더와 당이라는 권력이 피지배층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고 있다. 오세아니아의 체제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데에 감시의 원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아니아 사회가 전체주의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당이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념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는 바로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부 1장에서 윈스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어쩌면 사상경찰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의 선을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도청을 당하고, 캄캄한 때 외에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그런 생활

2) “판옵티콘[panopticon]”,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4&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참고.

3) 한희진, 「미셸 푸코의 판옵티시즘에서 인식, 권력, 윤리의 관계」, 『의철학연구』, 제13집, 2012, p.85.

이 본능적인 습관이 되어 버렸다.”⁴⁾ 이렇게 당은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론을 통해 24시간 사람들을 감시하고, 당의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체포되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대상에게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식(지식)과 권력(힘)은 불가분의 필연적인 관계에 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하는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⁵⁾ 인식(지식)과 권력(힘)의 관계와 보는 자(감시자)와 보여지는 자(피 감시자)의 관계는 인식론과 사회정치철학의 차원을 넘어서 근대 이후 서양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윤리도 수립했는데 푸코에 따르면 사회의 규범(norme)이란 타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이 지속적으로 의식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이고, 개인의 윤리(Éthique)란 타인이 나를 복 있다는 사실을 내재화한 결과라고 정의될 수 있다.⁶⁾ 푸코는 파놉티콘이란 벤담의 건축학적 기획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성’ 이념이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런 과학적 인식에 근거해서 사회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사회의 규범으로 수립되며, 이것이 어떻게 한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화되고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지까지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⁷⁾

당의 지배에 있어서 수단이 과학기술이었다면 그 목적은 관념의 지배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하기 위해 당이 만들어낸 원리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중사고와 신어다. 이중사고란 과거의 기록을 날조했다는 사실을 곧 잊고 그 날조된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는 심리작용을 말한다. 당이 원하는 내용이라면 거짓도 진실이 되고, 당원들은 무조건 이것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2=5'나 '굴종은 자유이다'라는 모순이 당의 이념으로 결정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당에서 초콜릿 배급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표하였는데 얼마 후 일주일동안 배급받는 초콜릿의 양이 30g에서 20g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당은 초콜릿 배급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다. 분명 거짓이지만 이중사고를 통해 진실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도 당에서 장악하고 있으므로 초콜릿 배급량에 대한 약속이 변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당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만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작가가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세계인 오세아니아를 유토피아로 인식하게 된다.

신어는 당이 사람들의 사고를 점차적으로 불능화시키기 위해 언어를 최대한 단순화시킨 것이다. 책의 내용 중 ‘신어의 원리’ 부분에서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신어의 고안 목적은 영사의 신봉자들에게 걸맞은 세계관과 정신 습관에 대한 표현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사 이외의 다른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적어도 사상이 언어에 의존하는 한, 신어가 일단 전면적으로 채택되고 구어가 잊히게 되면 이단적 사상, 즉 영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상은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게 된다. ⁸⁾

이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창조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정통적인 의미를 지닌 낱말을 삭제하고 한 어휘의 2차적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신어에는 아직도 'free(자유로운)'라는 낱말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4) 조지오웰 지음, 정희성 옮김, 『1984』, 믿음사, 2003, P. 11-12

5) 한희진, 앞의 논문, p. 88.

6) 한희진, 앞의 논문, p. 90에서 참고.

7) 한희진, 앞의 논문, p. 92.

8) 조지오웰 지음, 정희성 옮김, 앞의 책, P. 419

말은 'This dog is free from lice. (이 개에는 이가 없다.)'라든지 'This field is free from weeds. (이 밭에는 잡초가 없다.)'라는 식의 문장에만 사용될 수 있을 뿐, 'politically free(정치적으로 자유로운)'라든지 'intellectually free(지적으로 자유로운)'라는 옛날식 표현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지적 자유란 이제 더 이상 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념이 없으면 낱말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9)

신어는 사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어휘 선택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도 신어의 고안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었다. 10)

게다가 이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을 필요가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 섹스는 생식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절대 그 행위에 있어서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당에서 정해준다. 소설의 내용 속에서 윈스턴도 부인이 있지만 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의무적인 섹스를 한다. 또한 윈스턴 스미스와 줄리아가 나누는 사랑도 오세아니아 사회에서는 사상범죄로 취급당하며, 사랑은 오직 빅브라더에 대한 사랑만이 존재하고 당에 대한 충성만 지닐 수 있다.

(3) 현대사회와 판옵티콘

지금까지 제러미 벤담이 고안하고, 미셸 푸코가 설명한 근대권력에서의 판옵티콘, 그리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판옵티콘적 요소를 찾아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판옵티콘적 요소는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포스터(Mark Poster)에 의하면 “오늘날 <통신망>과 그것이 산출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초(super) 파놉티콘은 슈퍼 파놉티콘을 말한다. 요컨대 벽과 창문, 망루나 감시자가 없는 감시체계를 이룬다. 감시기술의 양적 증대는 권력의 미시물리(微視 物理, microphysic)라는 질적 변동을 초래한다. 그러나 기술의 변천은 그러한 변동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대중은 앞서의 질적 변동의 과정에서 감시에 길들여지고 참여하도록 규율되어진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도시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사람들은 정보와 혜택을 얻고자 자신도 모르게 매순간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활용당하는 현대의시스템을 ‘슈퍼 파놉티콘’이라고 한다. 11)

현대판 일망감시체계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TV)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 그러나 CCTV는 푸코의 파놉티콘의 일망감시체계와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름 측면을 보인다. 파놉티콘의 경우 감시자가 피감시자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감시자가 감시체계를 내재화하여 스스로를 규율에 속박시킨다. 도심 속의 CCTV는 사람들 눈에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화되어 사람들은 더 이상 CCTV를 외면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권력이 내재화되는 것이다. 13)

푸코의 파놉티콘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관찰, 관찰은 통한 평가-정상화와 표준화 가

9) 조지오웰 지음, 정희성 옮김, 앞의 책, p. 419

10) 조지오웰 지음, 정희성 옮김, 앞의 책, p. 420

11) 구윤희, 「다망감시로써 슈퍼 파놉티콘을 통한 현대사회의 시선의 권력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2009, p. 105-106.

12) 구윤희, 앞의 논문, P. 104.

13) 구윤희, 앞의 논문, P. 105.

능-가 가능해진다. 파놉티콘의 원리를 통해 결국 규율권력을 만들고 규율의 권력은 인간이
 란 객체를 가시화하여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파놉티콘은 정보통신
 기술의 속성인 흔적을 남겨주는 특징과 연관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권력으로 자리 잡
 아 간다. 정보통신발전은 일망감시체계를 다망감시로 바꾸어 놓았다.¹⁴⁾

그 예는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인터넷이 가장 중요하고도 큰 부분을 차
 지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과 언론의 발달에 힘입어서 전문적 지
 식이 더 이상 특정한 계층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¹⁵⁾ 이렇게 전문적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파놉티콘의 일방적 감시 체계가
 붕괴되고, 오히려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소수의 전문가들을 역으로 감시(역 파놉티콘,
 panoptique inversé)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쌍방향으로 감시(시놉티콘, 프랑스어
 synoptique, 영어 synopticon)할 수 있게 됐다.¹⁶⁾

다음은 2015년 11월 26일 미디어 오늘의 칼럼 내용 중 일부이다.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주
 장한 것 처럼 감시의 내재화는 권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한다.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는 것을
 테러집단인 IS에 비유한 것은 그렇게 도덕적 잣대를 가져다 대려는 어설픈 시도다. 미국의
 보수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트위터에서 “Really(진담이냐)?”고 어이없어 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박대통령의 무지 때문이지만, 한국정부는 ‘반정부’와 ‘부도덕’을
 동일시하는 유교적 전통을 민주주의 보다 위에 두어왔다.

푸코가 언급한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의 형태는 그 자체로도 권력이다. 그 구조에서는 감시
 하는 사람(간수)이 감시당하는 사람(죄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드러나 있고,
 상대방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방비상태가 된다.

헬멧과 안면보호대, 방패 뒤에 숨어서 핸드캠으로 촬영하는 경찰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건
 권력 앞에선 사람들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시위대든 경찰이든 폭력을 행사한다면 도덕적
 판단의 영역이 되지만, 얼굴을 가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시위 중 마스크 착용금지는 권력 앞에서 시민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고 시위
 대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위다.

찾길은 처음부터 찾길이 아니었고, 아무도 없는 찾길을 건널 때 드는 죄책감은 학습의 결
 과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자유를 권력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다.¹⁷⁾

다음은 2013년 7월 1일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14) 구윤희, 앞의 논문, P. 105.

15) 한희진, 앞의 논문, p. 97.

16) 한희진, 앞의 논문, p. 97.

17) 박상현, “마스크와 파놉티콘, 그리고 시민의 자유 - 권력의 어설픈 도덕화 잠재적 범법자 취급이 '진
 짜' 나쁜 것”, 《미디어 오늘》, 2015년 11월 26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04>>, (2015. 12. 6).

미국 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계약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자국 내 정보기술(IT)업체의 서버를 이용해 고객들의 전자우편과 검색기록, 동영상과 사진, 채팅 정보 등을 수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즘’(PRISM)이란 일급기밀 프로젝트를 통해 구글과 야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회사들의 서버에 접속해 고객들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한달간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전세계 정보만 해도 970억건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의 사찰을 피해 홍콩으로 건너가, 미 언론이 아닌 영국의 진보일간지 <가디언>에 이런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안보 활동에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미국 내 분위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미국 서점가에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1984> 발간 60주년 기념판의 판매순위는 6월27일 현재 72위로, 14일째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략)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 파놉티콘’이 등장합니다. 전자우편과 소셜 네트워크 계정,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통화와 은행 거래 등의 개인정보는 인터넷과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언제라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건물, 거리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벤담의 파놉티콘이 피감시자들을 한 공간에 가둬두어야 했다면 전자 파놉티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마저 뛰어넘습니다. 굳이 원형감옥을 세우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감시의 손길을 뺄 수 있게 된 만큼 사찰과 통제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세계 구석구석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자 파놉티콘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구촌을 감시하는 ‘빅브러더’ 미국에 세계 각국은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안보국이 테러를 막기 위해 전화기록을 추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설문조사에 ‘그렇다’고 답한 미국인이 56%였습니다. 스노든의 폭로를 두고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적 행동이라는 의견과 국가 반역이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게 된 미국인들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 자유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감시를 일상화하고 자유를 구속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국가 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과 감시 가능성만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토마스 마티센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Synopticon)이란 개념을 제시합니다. 파놉티콘(Panopticon)에 쓰인 ‘모두’라는 뜻의 접두사 ‘pan’을 ‘동시에’라는 뜻의 접두사 ‘syn’으로 바꾼 말입니다. 언론과 방송의 권력 감시, ‘다 대 다’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대중들의 ‘역감시’가 그 예입니다. 실제로 2011년 군부 독재로 자유언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집트와 튀지니에서는 젊은이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을 형성하며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후략)¹⁸⁾

18) 김영우, “지구촌 감시하는 미국, 세계의 ‘빅브러더’인가요”, 《한겨레신문》, 2013년 7월 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93973.html>>, (2015. 12. 6).

위의 기사들과 같이 '판옵티콘'적인 요소들과 사건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간사회와 권력이 발생하는 이상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그려낸 오세아니아 사회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판옵티콘'에 대항할 수 있는 대중의 힘이 등장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직접 참여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대안언론이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권력의 감시와 통제에 대항하는 대중들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들의 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기능도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된다면 가정 하에 가능한 일이고, 위의 기사들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중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다양하고 강화됨으로서 '판옵티콘'적인 요소들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론

이상으로 조지오웰의 소설 『1984』와 현대사회를 '판옵티콘'의 개념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디스토피아 소설인 『1984』의 결론은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결국은 당의 권력에 복종하면서 비관적으로 끝났으며 우리 사회의 현실도 그다지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판옵티콘'적인 요소들에 투쟁하였고 승리하였다. 물론 '판옵티콘'이라는 체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분명 그러한 요소가 필요한 곳이 있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권력이 있는 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쓰여지지 말아야 할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 'V'의 대사 중 한 구절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전화통에 고함을 질러대고 곧 특공대가 오겠죠. 왜일까요? 정부가 대화 대신 곤봉을 휘둘러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을 넘어서 들으려하는 자에게 진실을 전해서죠. 그 진실이란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단 겁니다. 잔학함, 부정, 편협함, 탄압이 만연하고 한때 자유로운 비판과 사고, 의사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젠 온갖 감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죠. 어쩌다 이렇게 됐죠?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몇 년 전 영화 '브이 포 벤데타'를 본 기억을 되살리며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었고, 현재의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수업 중의 토론에서도 좋은 내용의 의견이 오고 갔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위의 영화 속 대사의 내용이 『1984』 속의 사람들과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함의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지 오웰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 “내 작업들은 돌이켜보건대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¹⁹⁾,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²⁰⁾라고 말한 것과 그의 소설의 내용을 보았을 때 『1984』를 보고 단지 소설로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그

19) 조지 오웰 지음, 이한중 옮김, 『나는 왜 쓰는가』, 한겨레출판사, 2010, p. 300

20) 조지 오웰 지음, 이한중 옮김, 위의 책, p. 297.

런 점에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인간사회에 있어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본다.

4.참고문헌

단행본

- 조지오웰 지음, 정희성 옮김, 『1984』, 민음사, 2003.
- 조지 오웰 지음, 이한중 옮김, 『나는 왜 쓰는가』, 한겨레출판사, 2010.

논문

- 구윤희, 「다망감시로써 슈퍼 파놉티콘을 통한 현대사회의 시선의 권력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2009.
- 남궁협, 「조지오웰의 <1984년>에 담긴 현대적 파시즘에 대한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2.
- 박경서, 「George Orwell의 정치소설 연구 : Nineteen Eight-Four를 중심으로」, 『영남저널』, Vol.5 No., 영남영어영문학회, 123-144(22쪽), 1994.
- 변문균, 「『1984』에 나타난 조지 오웰의 해안」, 『영미어문학』, 제103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12 61~81 (21pages).
- 서정호, 『오웰소설 '1984'의 알레고리에 대한 시각이미지 표현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논문, 2011.
- 한희진, 「미셸 푸코의 파놉티시즘에서 인식, 권력, 윤리의 관계」, 『의철학연구』, 제13집, 2012.

신문기사

- 김영우, “지구촌 감시하는 미국, 세계의 ‘빅브러더’인가요”, 《한겨레신문》, 2013년 7월 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93973.html>>, (2015. 12. 6).
- 박상현, “마스크와 파놉티콘, 그리고 시민의 자유 - 권력의 어설픈 도덕화 잠재적 범법자 취급이 '진짜' 나쁜 것”, 《미디어 오늘》, 2015년 11월 26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04>>, (2015. 12. 6).
- 허지웅, “[허지웅의 영화로 세상읽기] ‘설국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경향신문》, 2013년 8월 1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12141435&code=990100>, (2015. 11. 29).

인터넷 자료

- “팬옵티콘[panopticon]”,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4&cid=43667&categoryId=43667>>.